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11월 3일과 4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군사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차경일, 전용국, 림태근, 김정득, 황강철, 군관들인 안학범, 리영진, 리영남, 김성남, 리용준, 한동균, 장은주, 리광섭, 오현덕, 김현봉, 정기종, 최광성, 김영순, 김동길, 박병식, 백학덕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그 어떤 명예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군사교육사업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 있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군사교육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따듯한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설에서 군사교육일군들이 지난 기간 군사교육사업에

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시고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사교육사업은 인민군대의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전기간 군사교육사업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군사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여 인민군대의 핵심지지를 튼튼히 다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선군혁명의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군사교육중시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인민군대 앞에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적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놓고 불패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군사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쇠소리가 나는 야전형의 지휘성원들, 다병종화, 만능화된 백두산 혁명강군의 맹장들을 더 많이 키워내어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새 세기 군사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본사기자



데서 군사교육일군들의 위치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에서 제일로 아끼고 믿고있는 그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앞날을 위하여 모두 건강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연설을 마치시자 백두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장은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사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사격훈련을 보시였다.

사격훈련은 현대화된 고사로켓들의 기술상태와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검열관정하며 다종의 신형고사로켓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반항공부대들 싸움준비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다 목적을 두었다.

사격훈련에는 서부전선에 배치되어있는 4개의 반항공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격장감시소에서 반항공부대들의 실태와 사격

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종합청취하시며 사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격훈련을 보시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에게 고사로켓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의 현대화, 정밀화를 계속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진행된 고사로켓사격훈련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령공

방위사상에 립각하여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반항공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 병싸움준비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올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다종의 신형고사로켓들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령공방위임무수행에서 고사로켓병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들을 통하여 고사로켓병들의 실전능력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고사로켓개발사업을 보다 적극화해나감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공중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통같이 보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국가반항공방어를 새로운 전략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지난 10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제 105(2016)년 5월초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 결정서발표에 지금 내외가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다음해 5월초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소집되는것은 민족자주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당제6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수십성상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광명한 미래로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당, 위대한 어머니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면모와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날이다.

그 날들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현세적으로 붕괴되는 가슴아픈 현실도 목격하였고 민족의 최대국상을 련이어 당하고 참기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주의종말》, 《3.3.3. 붕괴》설을 내들리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발악적으로 벌린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소동도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오늘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높이 군력을 억척같이 다져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내었으며 강성국가건설에 진입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왔다.

선군정치에 의해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군으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룰 뜻깊은 당대회

로 자라나고 군민대단결이 실현되어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자립적민족경제토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재부들,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마련된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는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구현해온 결과 자위적억제력은 비상이 강화되고 경제와 문화, 인민생활향상 등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창전거리, 마식령스키장건설,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가 하면 현대화된 일터들에서는 생산의 동음 높이가 울리

고있으며 해마다 농업생산량이 늘어나고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풍겨 인민들의 식생활이 날이 향상되고 있다.

생기발랄하고 진취적인 모란봉악단과 세련되고 우아한 청봉악단의 공연을 비롯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체육의 대중화방침이 구현되어 온 나라가 체육으로 흥성이고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공화국이 련속 오르는 장쾌한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로 태어나는 속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걸어온 투쟁의 길, 승리의 길을 궁지높이 되돌아보고 총화하며 선군조선의 령도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다.

당제7차대회는 위대한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리정표로 될것이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여 커다란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뜻깊은 당대회를 더 큰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불태우며 공장과 농촌, 어장 그 어디서나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절세위인을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속하고 세련된 위대한 당이 있어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김광익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선군조선의 앞날은 더욱 휘황찬란하다.

통일위업을 고무추동할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퍼진것이다. 다음해 5월초에 열리게 된다니 벌써부터 가슴은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끓어오른다. 조선로동당대회가 과연 어떤 대회인가. 돌이켜보면 뜻깊은 당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마련되곤 하였다. 오늘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로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되어 울려

최근에 북남고위급급접촉이 마련되고 소중한 합의가 이루어진것도, 그 합의가 하나하나 리행되어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것도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통일정책과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리게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더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역사적인 대회로 기록되게 될것이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뜻깊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일위업수행에서의 더 큰 성과로 맞이할 일념밑에 온 겨레와 함께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매년 5월초 평양에서 소집된다는 소식에 접하고보니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지나온 령사는 온 겨레가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령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수많은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민족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로동당이 통일운동의 진행에서 변함없이 견지한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대한 인민의 모습 70년전 민심의 웨침 - 《이분과 같이 싸우리라》

지금으로부터 꼭 70년전 8월, 조선은 해방의 열기로 진동하였다. 삼천리를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서 인민은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었다. 민족의 령수를 낳은 유서깊은 도시 평양은 그이의 입성을 기다리느라고 밤에도 잠들줄 몰랐다. 14살 되시던 1925년에 나라 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시여 영웅적인 항일대전으로 마침내 나라를 해방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김일성장군님, 오늘도 오실가, 래일엔 오실가. 그이를 기다리는 평양시민의 간절한 마음은 한결 같았다. 평양과 서울뿐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이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도를 닦으신 김일성장군님은 구척의 키에 백발장수수염을 날리시는분이라고 우겨대기도 하였다. 3천만의 심장은 해방의 은인이 개선하는 그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고동치고있었다. 허나 그이께서는 9월 22일 오전, 조용히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다음날부터 그이께서는 전우들과

함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월 9일 강선제강소(당시)를 돌아보시고 그후 당을 창건하신 다음 10월 14일에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장에 나서시였다. 그날 평양시의 대통령들은 대회장으로 가는 인파로 차고넘쳤다. 평양공설운동장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고 최승대와 울밑대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였다. 온 겨레가 그처럼 열렬히 호모하고 목마르게 고대하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장은 열광적인 환호로 들끓었고 너무도 큰 감동때문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인민의 환호성은 열풍이 되어 그이께 뜨겁게 와 닿았다. 그때를 회고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100여만 군중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를 한몸에 받으며 단상에 서있을 때 나를 지배한것은 그 어떤 미사리구름도 동원해도 그려낼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때였는가고 묻는 사

람이 있다면 나는 그 순간이었다고 대답할것입니다. 민중의 아들로서 민중을 위해 싸웠다는 행복감, 민중이 나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것을 느끼는데서 오는 행복감, 그 민중의 품에 안긴 행복감이었을것입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폭발한 인민의 환호성, 이는 조국과 겨레를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겪으신 간난신고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표창이고 답례였다. 그것은 곧 인민의 사랑과 신뢰였다. 부르조아정객들은 돈으로 인민들을 유혹하지만 그이께서는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얻으셨다. 그날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사적인 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애국성업에 이바지하자고,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이 땅 위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군중은 하늘땅을 진감하는 박수와 환호로써 지지를 표시하였다.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는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정경을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의 령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특히 대회를 령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님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 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그 름름한 용자를 한민 나라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흘렸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것이여서 산야가 떠나갈듯 한 환호성이 운데 《이분과 같이 싸우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었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던 령사의 그날에 있는 사변은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의 개선문광장에 대형화로 형성되어 오늘날 70년전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열광한 인민의 모습을 방불하게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매혹되어

세계를 틀어잡은 애민송가

2015년 10월 10일, 이날은 세계의 초점이 평양으로 모인 날이었다. 서방의 보도매체들은 북조선이 당창건 경축열병식에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공개할수 있다며 전례없는 불안과 초조에 싸여 있었다. 그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경우 핵무기와 미싸일에 대해 반드시 언급할것이라는 예측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연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 그 자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하신 그분의 연설은 그 어떤 가공할 첨단무기가 아니라 시종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일관되어 있었다.

작가도 기자도 아닌 나로서는 지금도 그때 받은 충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다. 세계가 지켜보는 열병광장에 올려져진 령장의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실로 뜻밖이었다. 열병식이란 군대와 무기의 위력을 시위하기 위해 진행되는 레식인줄 안다. 그래서 열병식장에서의 연설은 의례히 군대와 무장장비의 위용과시로 되어왔다. 그런데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바와 같이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제1위원장이 25분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구절구절에 맥박치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또 얼마나 크나큰 충격으로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력사의 돌풍속에서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이 있어 항상 배심든든하였다시며 인민자신도 미처 몰랐던 《공》까지 헤아려주신 인민에 대한 열화의 숭배,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의 진정에서 힘을 얻곤 하였다고 하신 인민사랑의 고백에 만민이 머리를 숙였다.

조선로동당, 그 이름과 더불어 궁지높게 울리는 찬가를 나는 많이도 들어왔다.

백전백승의 당, 강철의 당, 불패의 당...

그러나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모든 찬가우에 인민을 놓으신다. 우리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요,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하시며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에 담아 총화하신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유사이래 인민이 처음으로 받아본 정의 고백이고 세계가 처음으로 들은 인민사랑의 연설일것이다. 력사에 애민을 웨치며 등장하였던 수많은 사상가, 정치가들중 어느 누가 인민을 전지전능이라 부르고 혁명의 이름이라 칭송하고 승리의 력사라 찬양한적이 있었는가. 자고로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 위인들은 적지 않았지만 그 누가 인민에게 깊이 허리숙여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적 있었으며 누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호소한적이 있었는가.

격동의 현장을 함께 체험한 뉴욕의 동포신학자는 행사가 끝난 후

홍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은령도자님께서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숨이 팍 멎는것 같았다. 태양의 인사를 받았다고 할가. 정녕 력대의 모든 성인군자들을 무색케 하는 회세의 대성인의 모습이였다.》

면식있는 도이첼란드의 동포음악가의 말도 심금을 울렸다.

《그분의 연설은 활활 불타는듯한 뜨거운 애민의 열도와 세찬 박동으로 모두의 심장을 틀어잡는 세상에 다시 없을 애민송가이다.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무한한 믿음, 열렬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자자구구는 그대로 인민에게 매혹되어 인민을 구가하는 열혈시인의 불같은 토로였다. 하지만 그 어떤 시적령감이나 문학적재능의 산물이 아니라는데 그 송가의 위대함이 있는것이다.》

인 민 이 사 는 별 나 라

조국방문기간 인민사랑의 해빛 넘치는 현장을 돌아보며 받아안은 감동도 헤아릴수 없이 컸다.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고래동같은 2층 기와집, 십장생의 하나인 백학을 형상한 멋진 울타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비길데 없이 편리하고 가정적분위가 살아나게 꾸려진 식사실, 운동실, 놀이터, 치료실, 영화관, 그 옛날 궁궐의 안뜰을 방불케 하는 아담한 내정과 록음 우거진 공원...

손을 쬐으며 렬거하는것은 어느 고급호텔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평양양로원이야기이다.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여생을 즐기고있다. 이곳에서 만나본 로인들은 저마다 자랑도 많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양로원에서 병을 다 털고 대지를 활보한다. 이발이 나빠 식사를 못하던 할머니가 이동치료를 나온 구강병원선생들의 정성으로 새 이발들을 해놓고 10년을 젊어졌다. 복반은 그들에게 어찌 아홉효자가 부럽고 백자천손이 그리울손가. 꼭 별나라에 갔다온것만 같다.

몇년전 사업상 용무로 한겨울 머물렀던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하철역과 철도역들마다 무질서하게 들어선 《지합집》들에서 추위에 떠는 로숙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식 없는 늙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보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역 주변들에서 강제퇴거시키고 있었다. 북부조국과는 명암처럼 대조되는 판이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고대그리스시인 호메로스는 장편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이렇게 쓴바있다.

고아란 밋도 없어
뺨은 눈물에 젖고 눈은 내리갈려...

처량한 그 시구절이 불현듯 생각나는것은 조국에서 받아안은 또 하나의 크나큰 감동때문이라.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꼭 가보고싶었던 곳들중의 하나가 육아원, 애육

지금껏 세상을 두루 편답하면서 서방정객들의 선거유세도 많이 보아왔고 《응변의 달인》이라는 이들의 청산류수도 들어보았다. 그때마다 느낀것은 언어는 화려해도 감동은 없고 미사려구는 많아도 여운은 없으며 곁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비였다는것이였다. 거짓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했기때문이다.

해외에서 어지러운 정치략류속에 살아온 인생들에게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새벽기운처럼 청신한 인민의 령도자상을 뇌리에 깊이 심어주었다.

서방언론들이 예측한 핵무기나 미싸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 절대적인 믿음으로 맥박치는 그 위대한 애민송가는 그보다 더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며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세계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10월의 경축광장에 태양으로 눈부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해마지 않았다.

원이었다. 인류사와 더불어 불행의 대명사로 되어왔고 오늘도 방랑아의 동의어로 되고있는것이 《고아》이며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난문제 또한 고아문제이다.

고려호텔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대동강반의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물론 올해 국제아동절에 준공식을 하였다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에까지 수고를 무릅쓰고 찾아갔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궁궐같은 요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못할 감동속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좋고 얼굴에 그늘 한점없이 뛰여노는 귀여운 원아들을 꺼안고 능글볼볼 쓰다듬어주면서 여기와보기 천백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들었다. 재벌총수들의 별장도 울고 갈 이런 눈부신 궁전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번을 듣는대도 절대 믿지 못했을것이다.

란복과 함께 생각도 깊어진다. 수수천년 따라지신세를 면치 못하던 불운아들의 운명이 천양지차로 뒤바뀌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속에 내버려졌던 자식없는 늙은이들과 부모없는 고아들까지 온 세상이 부럽도록 복을 누리가고있는것이다.

이곳 일꾼들은 물론 철부지아이들까지 따라서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주

자고 하시며 이렇듯 궁전같은 육아원과 애육원을 마련해주셨다는것이다. 더우기 육아원, 애육원에 잇달아 양로원을 건설하도록 하시며 무의무탁로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외로움마저 가셔주시였다고 하니 얼마나 정깊고 살뜰하고 세심한 사랑의 세계인가.

태양의 빛과 열에는 한계가 있어 음지와 동토대가 있지만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에는 음지도 동토대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점 그늘이 드리울세라 빛을 뿌려주고 따뜻이 품에 안아주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라선땅에 대한 참관에서 더욱 절감하였다.

지난 8월말 라선시 선봉지구의 큰 물피해상황을 찍은 인터넷에 오른 위성사진들을 아픈 마음으로 보았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없게 온통 검은런 감랑천지여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여길수 없을 정도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북조선의 선봉지구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다시 일떠서려면 몇해가 걸릴지 알수 없다고 보도하고있었다. 말그대로 모든것을 휩쓸고 모든것을 삼켜버린 악몽과도 같은 재난이였다.

바로 그러한 때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북남대결이 첨예화되어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도 인민이 겪는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피해복구사업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내밀도록 하고 하늘길, 배길을 달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가시여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니 그분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 하늘같은 사랑이 전화위복의 기적을 낳아 라선땅은 참혹한 재난의 흔적을 털고 회한한 선경마을로 새로 태어났고 김정은원수님께서 너무도 만족하시여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여 인민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시였다고 한다.

단 30여일만에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전변을 두고 상전벽해라고 했던가. 더욱 감복하게 되는것은 피해자들모두의 집집마다 TV와 가구들, 부엌세간과 빨감까지 다 갖추어주어 집주인들이 아무런 이사짐도 없이 빈손으로 새집들이를 하였다는것이다. 이 또한 조국에서만 생겨날수 있는 전설아닌 전설이라 해야 할것이다.

자식이 없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부모가 없어도 설음을 모르며 재난을 당해도 불행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이나 신화에도 없다.

인민이 사는 별나라이다. 정말 조국인민들이 부럽고 그들이 누리는 락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무궁창창한 인민의 나라

조국에서는 인민이 어떤 비상한 존재로 되고있기에 천행만복의 주인공들로 부러움의 절정에 서게 되였는가.

라선땅의 피해복구정형을 돌아보시던 그날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피주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응당한 본분이라

존엄높은 인민으로 세계의 각광을 받게 되였는가.

태양!

다름아닌 태양의 높이에 인민이 올려세워져있었던것이다.

보름남짓한 기간 일생을 다시 산것과 맞먹는 극적인 체험을 하며 심장으로 깨친 진리가 있다.

회세의 대성인의 인민사랑의 빛발아래 만복을 구가하는 조선이야말로 세계의 선도국이라는것이다.

신문과 TV로도 보고 실물로도 멀리서, 가까이서 여러차례 볼수 있었던 대동강기슭의 미래과학자거리를 놓고 말할가 한다.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라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고도로 예술화된 건축물들의 독특함과 화려함에도 놀랐지만 보다는 그 멋진 건물들이 인민들의 살림집이랴는데 훨씬 더 놀랐다. 집값이 《평》이라는 사실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을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하나 놀라게 되는 점이 있는것이다. 필자도 뉴욕의 허드슨강반에 있는 유명한 초고층아파트지구나 홍콩의 고층아파트숲을 돌아본적 있으며 서울 강남구의 부자촌도 못본것이 아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아무리 상류층이 사는 아파트라 해도 건축형식은 대개 밋밋한 탑식이다. 어느 건설업자도 설계와 시공에서 몇배의 품이 더 드는 그런 아파트를 지으려 하지 않기때문이며 설사 지었다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 수요자를 만나기 힘들기때문이다. 이런데로부터 기하학적곡선미를 그리며 화려함을 뽐내는 건축물은 폐외없이 대은행, 독점제벌들의 본사이거나 최고급호텔들뿐이다.

자본주의를 《인류사회발전의 종착점》인양 떠드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앞으로 몇년이 지나게 되면 북조선처럼 인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줄수 있고 고도로 예술화된 멋쟁이아파트까지 지어줄수 있는가.

10년? 100년? 1 000년?

누구도 답할 사람이 없을것이다.

묻고싶은 말은 그외에도 많다. 국민소득이 얼마쯤 더 높아야 인민들이 세금에서 해방되게 되는가, 경제가 어느만큼 더 발전해야 평범한 인민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한명의 학생을 위해 섬마을에 분교가 세워지고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통학열차가 뛰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가. ...

몇백년, 몇천년이 흘러도 답은 듣지 못할것이다. 자본주의가 절대로 흉내낼수 없고 영원히 따라올수 없는 아득한 높이에 조국이 올라서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이러한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고 《인권》을 운운하고 《붕괴설》까지 채쳐대고있는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다.

모략가, 음모가들이 아무리 독설을 내뱉고 날조극을 연출한다고 해도, 설사 천년을 기다린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참신하고 가장 력동적이며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의 성세를 이룬 공화국은 끄떡없고 더욱 날개를 돋치며 부강번영의 상상봉으로 질주하고있다.

나라의 근본이며 력사의 주체인 인민이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올라서고 그 인민의 위대한 힘과 지혜, 열정과 신뢰속에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

재미동포 김지영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8)

두차례의 평양상봉을 마련한 애국의 결단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는 유리한 내외환경들이 조성되게 되었다.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의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게 되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당시)는 대조선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유화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실현됨으로써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더 한층 조직화, 적극화되었다.

변천되는 대세의 흐름을 통찰하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일군들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이어 그해 3월 눈보라 휘몰아치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찾으시었다. 아아한 백두의 산봉들을 굽어보시며 온 민족이 지지환영하고 바라마지 않는 민족사적대경사를

정사시키실 구상을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드디어 조국통일운동사에 기록될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실 내용단을 내리시었다.

이에 따라 북남간의 실무접촉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제 89(2000)년 4월 8일에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4.8북남합의서가 발표된 후 남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조선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81%에 달했으며 파 반수가 북남수뇌회담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전기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로 하여 《통일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 했다.

4.8북남합의서가 채택 발표된 후 공화국은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북과 남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사이에 력

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회담준비를 위한 다섯차례의 준비접촉과 두차례의 통신, 보도실무자접촉을 진행하였다.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속에 6월 13일부터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상봉이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마중나가시어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일행을 뜨겁게 맞아주시었다. 그 순간은 오랜 불신과 대결의 차디 찬 얼음이 따뜻한 해빛을 받아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내리던 순간이었다.

평양의 거리거리는 뜨거운 동포애, 통일념원을 안고 손에손에 꽃뭉음을 들고 떨쳐나온 수많은 각계층 시민들의 성대한 환영으로 물결쳤다.

6월 1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송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뜨거

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지를 지니시고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 동안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이제 공동선언이 나가면 아마 세상이 또 한번 놀랄수 있다고, 북과 남이 민족주체를 찾았다고 할것이라고, 바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에 방침이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평양상봉의 55시간동안 온 겨레와 세인을 격동시킨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될수 있는것은 민족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열의와 의지

의 산물이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서 새로운 력사적기원을 얻 민족단합선언이며 통일지향선언이였다.

하기에 공동선언이 채택되자마자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남북정상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대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하였고 야당인 자민련대변인은 《반세기의 분단력사에 중지부를 찍는 결정적초석을 쌓았다.》고 지지립장을 밝혔다.

전세계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구에 던진 《평양의 통일핵폭탄》이라고 묘사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삼

천리강토가 통일의 열풍으로 끓어번졌다.

막혔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의 길이 열리고 평양과 금강산, 부산과 대구 등 삼천 리방방곡곡에서 통일행사, 통일응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속에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려는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의해 주제96(2007)년 10월에 또다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온 겨레에게 통일신심과 락관을 더욱 크게 안겨주었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자랑스러운 슬기, 드높은 기개를 만방에 과시하고 새로운 21세기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세기로 될것임을 세계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통일의 환호성은 삼천리강토에 메아리치

고 온 남녘땅은 다시금 김정일열풍으로 세계게 끓어번지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판으로 10.4선언을 마련》,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 과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제시》 등으로 대서특필하였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최고의 리방향곡에서 통일행사,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 《장군중의 으뜸장군》이라는 칭송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러한 열풍의 도가니속에서 북남사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개성공업지구건설확대, 백두산관광 등 여러 분야의 쌍방향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고 분야별 협의리행기구가 구성 운영되어 많은 협력사업들이 합의되고 실천적인 후속조치들이 취해졌다.

참으로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간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뜻과 진지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 땅우에는 불신과 대결의 동토대를 녹여낸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시대가 도래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지난 10월 29일 룡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펼쳐진 북남로동자축구대회의 장면장면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고있다.

마가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그 큰 경기장관람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너도나

도 경기장을 찾아온 각계층 군중이었다. 그 가운데는 로동자, 사무원들도 있었고 가두의 녀성들도, 대학생들도 있었다. 통일축구를 보겠다며 멀리 주변구역에서 차를 타고 한 달음에 달려온 농장원들도 있었다.

관람석을 짝 채운 관중들은 《반갑습니다》의 노래선률속에 북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경기장에 입장하자 일제히 열렬한 박수와 우렁찬 환성을 터치였다.

경기는 북의 로동자선수들을 한팀으로 하고 남의 로동자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하여 펼쳐졌다. 원래 경기는 승부를 가르지는 치열한 마당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의 경기는 승부에 못지않게 서로 위해주고 고무격려하

며 통일의 공을 힘차게 차올린 가슴벅찬 통일의 산 현장이였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등 돌 두드려주며 동포애를 나누던 선수들, 마치 통일의 주로를 북남의 로동자들이 함께 달리는듯 싶었다.

혈연의 정은 가를수 없다

관람석에 차넘친것도 시종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열망이였다.

경기는 북에서 진행되었지만 평양시민들은 북남의 선수들을 다같이 뜨겁게 응원하였다. 분렬의 장벽을 헤치고 평양으로 달려온 남조선로동자선수들이 공을 몰아가며 문전으로 돌입할 때에는 하나와 같이 일어서서 거세찬 통일물결을 형성하며 힘 무하였다.

《야!》 하는 함성과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라는 웨침은 시종 온 경기장을 들었다 놓았다.

경기는 옹근 두 경기였고 시간도 많이 걸리였다. 경기시간이 흘러가고 날도 어두워짐에 따라 날씨도 점점 쌀쌀해졌다. 그

러나 관람석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날씨는 좀 차거웠으나 경기장을 달리는 선수들은 물론 그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마음은 동포애, 통일열기로 후덥게 달아있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목메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노래를 따라부르는 북남의 선수들의 얼굴에도, 관람자모두의 얼굴에서도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였다. 정녕 그것은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민족의 강렬한 통일열망의 분출이

였다. 경기를 관람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일국은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기쁨에 이어 오늘 북남로동자축구경기대회가 진행되는것을 보면서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것을 새삼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정이 통하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을 못할 리유가 없다고 봅니다. 북남고위급진급접촉의 합의가 착실하 리행되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고 통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경기는 끝나고 남녘선수들은 돌아갔지만 아직도 룡라도에 차넘치던 격정과 환희의 파도는 통일아 어서 오라고 힘차게 부르는듯싶다.

본사기자 최광혁



북남로동자축구대회를 지켜본 언젠가

최근 남조선 당국은 미국, 일본 등 적대세력들과 작당하여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유엔에 공동제출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적의식이 풀수에 짝배인 대결광신자들의 역겨운 추태이다. 《북인권》소동이 미국의 각본과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자라가 아는 사실이다. 공화국을 경제체제로도, 핵으로도 압살할수 없게 된 미국이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하고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 《북인권》소동이다. 그것이 얼마나 불순한 정치적목적물인지 알고있는가 하는것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앞장서서 《인권》라평을 웨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입증되고있다. 거기에도

《인권결의안》이니, 《보고서》니 하는 내용들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갖고 몇푼의 돈에 팔려 적대세력들의 비위에 맞게 없는 사실도 마구 만들어 내돌리는 《탈북자》쓰레기들의 《증언》이다. 이런 불순한 반공화국 암살소동에 남조선당국이 계속 기를 쓰고 매달리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악청을 돋구어대는것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압살기도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반민족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사실 인권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세계가 보는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너무도 처참하기때문이다.

살인적인 로동강도와 집단해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자살률은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을 당하는 파썸사회, 인권지옥이 남조선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강제유인람치되어 간 공화국주민 김련희녀성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로

또다시 호소하여 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끌고간것도 모자라 돌아갔다고 그토록 몸부림치며 호소하는 녀성의 앞길을 끝끝내 가로막아 생리별의 아픔을 강요하고있는 인간에 대한 정과 도리같은것은 꼬물만 콤도 없는자들에게 《인권》라평이 과연 어울리는가.

지금 북남관계에서는 고위급진급접촉합의의 리행으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온 겨레가 모처럼 조성되여가는 관계개선분위기를 살려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헐뜯는 《인권》보따리를 궁겨가지고 유엔무대를 동족대결의 무대로 만들려고 하고있으니 북남관계가 안중에 있는 행동인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동족에 대한 적대적인 대결소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부질없는 《인권》소동에 매달려야 북남관계나 해치고 얻을것은 하나도 없다.

본사기자 김명성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지난 8월 하순의 북남 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로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가고있다. 내외의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로동자축구대회는 관계개선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일촉즉발의 정세상황속에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의 획기적국면을 열어어나가야 할 때이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의 성과에 토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도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들이 아직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대, 문명시대를 개척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한 우리 민족은 인류역사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도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북에있던 남에 있던 5천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마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슬기와 재능, 민족의 단일성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 우리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령장과 자세를 가지고 관계개선에 힘하여야 하며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매우 상스럽지 못한 언행들이 계속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체력이 마치 저들의 《원칙론의 승리》인듯이 강변해나서는가 하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대응》을 떠들며 북남대결을 고취하고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구히 도발적인 《2015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사상최대로 벌려놓았던 남조선당국은 최근 금강산에서 모처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시각에도 핵추진항포모함을 끌어들이며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

이 모든것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고 동족대결을 선동하는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북남관계의 파국과 전쟁뿐이

다.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적도발소동이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영향을 미치는가하는것은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 8월의 사태를 통해서도 뚜렷이 실증되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도 보수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쌍방이 공동으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만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여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치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외세 의존에 파멸의 길

김은성

지난 2일 남조선당국은 일 본과의 《정상 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일본의 군국주의채침야욕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군국주의바람을 앞장에서 일으키는 아베를 끌어들이며 벌어진 회담에서는 관어 박은 《북 핵공조》 타령이 또다시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상전을 찾아가고 청해돌이며 반공화국 압박공조에 매달려왔다. 동족을 압박하기 위한 범죄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제는 일본상전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친일사대매국행위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지난날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40여년이나 잔악무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겨레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한 불

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7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침략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려 들면서 력사 교과서의곡늘음, 독도강탈야욕 등 군국주의채침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다. 최근에는 《안보보장관련법》안의 통과로 채침의 날개를 활짝 펴고 조선반도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 무력까지 파병할것을 공공연히 떠들어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번 남조선일본 《정상 회담》에서도 일본수상은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문제에 대해 《조기타결》이니 뭐니 하고 얼렁뚱땅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뻔뻔스럽게 돌아왔다. 침략의 과거범죄에 대해 자그마한 죄의식도, 반성도 없이 채침에만 혈안이 되고있는 이 위험천만한 일본과 마주앉아 오히려 동족을 해치려고 《북 핵공조》의 북통을 두드려댈것이니 얼마나 후안무치한 역적행위인가.

공화국의 자위의 역제력은 조선반도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세의 기도를 꺾어놓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민족공

동유병환자의 잡꼬대같은 소리

《쏘련은 73년만에 망했는데 북이 종주국보다 더 오래 지탱이 되겠는가.》, 《통일이 얼마 안남았다.》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잡꼬대같은 소리를 한다고 할것이다. 그런 황당한 잡소리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남조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한다는 김무성이 내뱉었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그의 북에 대한 인식정도가 유치원생수준도 안되니 말이다.

이전 쏘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련쇄적으로 무너졌어도 조선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었다. 남들같은 열백번 주저앉고 무너졌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이겨내고 공화국은 강성국가건설에 진입했다. 행성에 《3.3.3붕괴》설이 어지럽게 나돌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어찌보겠다고 《제재》와 군사적압력을 가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조선,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며 날로 비약하고 솟구치는 조선, 그 기적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푹푹히 모른단 말인가.

공화국이 이전 쏘련과 다르고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과도 다른것은 자주정치를 하고 인민을 제 일로 내세우는 사랑의 정치를 하고있는데 있다. 그래서 세상의 천지풍파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공화국이고 미국이 벌의별 고립압살책동을 다해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날로 더욱 굳건해지는 공화국이다.

백년, 천년이 가도 끄떡없을 이런 공화국을 아직도 《붕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있는것이야말로 공화국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천치의 행동

이라 해야 할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북붕괴》와 같은 오뉴월의 개꿈만 꾸는 이런자가 집권여당의 대표랍시고 우쭐령대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쏘련이 이렇소, 북이 저렇소 하고 떠드는것을 보면 시궁창에 덩구는 제 몸값이나 올려보자는것이 분명하다.

《대통령》병에 걸려 이제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세까지 보이는 김무성은 그 누구의 《운명》을 점치지 전제 제 가련한 정치적목숨부터 바로 짐을 쳐야 할것이다. 어리석은 개꿈만 꾸는 김무성이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력사교과서 《국정화》의 맨앞장에서 날치고있지만 사대와 매국반역만을 일삼는 인간오작룡이 같 곳은 력사의 쓰레기통뿐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범죄적기도가 극도로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제47차 《년례 안보협의 회》와 제40차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4D작전개념》 리행지침 승인》이니, 《조선에 기초한 전지구적 전통체제 전환》과 《련합방위태세 강화》니 하며 침략적인 군사적공모결탁늘음을 벌려놓았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4D작전개념》을 새로 작성한 《작전 계획 5015》에 반영할것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도발적 행동을 보다 완성하여 기어 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공모결탁행위이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소동은 완공의 기류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또다시 군사적대결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북남사이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일련의 인도주의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정세가 안정국면에 들어선 지금 그 누구도 대화와 평화에 향한 현 정세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되며 긴장완화분위기에 도움이 되게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고 다음 지휘, 지원시설을 타격하여 상대측미사일련의 정상적인 조종기능을 교란시키며 마지막으로 이동식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핵 및 미사일시설을 선제 타격하여 상대방의 미사일공격을 최종적으로 저지시킨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4D》는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영어단어 첫 문자를 따서 붙인것이다. 《4D작전개념》이 북침 선제공격각본이라는것은 이것이 어떤 전투력을 넘겨주고 수립되고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

여기에는 1000km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X-밴드》 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지상감시정찰기, 조기경보 위성, 《F-22》 전투기와 각종 전략폭격기 등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첨단전투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들어갔다. 또한 미사일공격체계인 《킬 체인》과 이른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이 지스쿠추함과 사거리가

각이한 《현무》급탄도미사일, 《패트리오트》 요격미사일, 《F-15K》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와 공대지미사일, 해외에서 끌어들이려는 《스파이스 2000》 정밀유도폭탄들도 포함되어있다.

더우기 《4D작전개념》이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된다는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헤아릴수 있게 한다.

《4D작전개념》의 작전 계획화와 그 실행을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북남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 시기에 확정된 사실은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고 안달이 나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추악한 물골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외세와 한쪽이 되어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것만 노리는 이런 호전광들이 있어 북남관계가 폭절을 겪고있고 전쟁위험도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자, 교란자가 누구인가를 푹 푹 보여준다.

본사기자 서희

《친일 교과서 반대!》, 《력사외곡 중단하라!》

서울에서 력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초불투쟁 전개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를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성원들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외곡된 력사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조종하는것은 독재 《정권》의 통치방식이라고 비난하였다.

력사교과서 《국정화》는 집권자의 외곡된 력사관과 《유신》체제부활야망때문에 생겨난것이라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집권자가 진실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

를 선포하였다라고 규탄하였다.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친일교과서 반대!》, 《력사외곡 중단하라!》 등의 글들이 씌여진 선전물들을 들고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본사기자

대 동 강 반 에 펼 쳐 진 황 흥 한 거 리

미 래 과 학 자 거 리 가 준 공 되 었 다



온 나라에 불어치는 태종체육열풍

*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15 진행 *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가 진행되었다.

김일성경기장과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곳에서 련일 성황리에 벌어진 체육대회는 인민들에게 전투적기백과 량만을 북돋아주고 뜻깊은 10월을 드높은 체육열풍으로 더욱 끓어번지게 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는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며 인민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민족의 슬기와 힘을 과시하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가 진행되는 기간 각 도(시)팀들 사이에 진행된 씨름경기는 참으로 볼만 하였다.

6살짜리 나 어린 씨름선수들로부터 체육단선수들의 경기에 이르기까지 살바를 팽팽히 조이고 배지기와 안걸이, 다리당기 등 다양한 씨름수법들이 펼쳐진 경기는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체육종목인 씨름경기의 장면을 보느라니 문득 18세기 김홍도가 그린 조선화 《씨름》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를 악물고 상대방의 다리를 들어 매어 쫓으려는 인물과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씨

름군의 모습, 갓을 벗어 놓고 앉아 구경하는 사람, 몸을 뒤로 제끼고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 웅크리고 앉아 긴장해서 씨름판을 주시하는 사람, 손을 들어 훈수를 하는 사람과 부채로 얼굴을 가리우고 숨을 죽여가며 넘겨다 보는 사람 등 구경군들의 개성적인 모습들. 고조된 씨름판의 분위기나 경기

를 보며 환호하는 구경군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지 않나.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함경남도의 김유일선수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첫 대회부터 올해까지 모든 경기들에서 우승한 실력있는 선수이다. 2년 전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결승경기를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결승경기는 평안북도팀과 황해남도팀간에 진행되었다. 량팀의 선수들은 재치있는 특기들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보임으로써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여러번 대항소상의 주인이 되어 온 나라에 힘장사로 널리 알려진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결승경기에 출전하여 관심을 모았다. 결승경기에서는 평안북도팀이 1등을 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의 씨름경기는 온 나라에 량만이 차넘치게 하고 민족의 자랑인 씨름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류현철

예상을 뒤엎은 룡구경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에서 주목을 끈 종목 가운데는 룡구경기도 있었다. 각 도(시)에서 가장 우수한 단위의 룡구팀들이 참가하여 조별리그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룡구경기에서 매 팀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력을 펼쳐보였다.

특히 황해북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선수들과 량강도 위연체제공장선수들 사이에 진행된 룡구경기는 그야말로 치렬하였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황해북도선수들에 비해 키가 훨씬 크고 체격도 좋은 량강도선수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길고 짧은것은 대보아야 하는 법.

경기가 시작되자 량강도선수들은 자기들의 큰 키를 살려 처음부터 공격적인 기세로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황해북도 선수들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치곤 하였다. 황해북도 선수들은 2, 3인결합과 짜인 련락으로 련이어 룡구공을 성공시켰다. 상

영철 황해북도팀 감독은 지 못하게 되자 량강도선수들은 중장거리 투사를 시도하는 전술로 나왔다. 그러나 황해북도선수들은 대인방어를 강화하면서 속공전술로 련속 점수를 올려 마침내 45 : 3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관람자들은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보인 황해북도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해 리

본사기자 김철호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이 자란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끈것들 중의 하나가 여자배구경기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여자배구경기에는 각 도(시)안의 청소년체육학교들과 학교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학생들이 자기 도(시)를 대표하여 출전한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여자배구발전전망을 짐작해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번 여자배구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다. 다른 경기들도 그러하

였지만 평양시팀과 함경북도팀간의 결승경기가 특별히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두 팀은 같은 조에 속하여 이미 한차례의 경기를 치른바 있다. 그만큼 상대에 대한 파악도 깊었다.

두 팀선수들은 앞선 경기들에서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처넣기와 맵짠 타격, 살짜공을 잘 결합하여 공격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방어를 조직하면서 좋은 장면들을 펼쳐보이었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 여자배구경기를 본 전문가들속에서는 수준이 높은 경기, 우리나라 여자배구의 밝은 미

래를 내다볼수 있는 경기들이었다는 좋은 반응들이 제기되었다.

배구협회 서기장 안성민은 이전에는 성인급배구선수들이 참가하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미래의 배구선수후비들이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팀들의 수준이 매우 높은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자배구경기를 조예선경기때부터 빠짐없이 보아왔다는 어느 한 체육단 배구감독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육심별만 한 선수들이 많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찾아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그의 수첩에는 이미 자기가 점찍은 선수후비들의 이름들이 여러 명이나 올라 있었다.

이번 여자배구경기를 통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전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체육열기와 함께 더욱더 약동하고 생기발랄하여 전진하는 사회의 밝은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경기 못지 않은 응원경쟁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는 경기도 치렬했고 응원 또한 볼만 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곳마다에서는 자기 지역의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응원단의 특색있는 응원들이 경기장을 들끓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라선시 응원단의 신은경대장의 지휘에 따라 100여명의 응원단이 《강라! 강라! 또 강라!》, 《라선의 본패를 보이자!》, 《잘한다! 우리

리선수 이겨라!》라고 웨치며 딱딱이 등 갖가지 응원기재들을 사용하고 춤틀등을 펼치는 모습은 경기장을 더욱 흥성있게 했다.

이 응원단에는 이번엔 엄혹한 자연재해를 가시고 훌륭히 일떠선 백학동의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녀성들이 적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이 고마워 노래 《그이만을 따르리》를 소리높이 부르며

화려한 춤틀등을 펼쳐놓은 이들도다. 그런가하면 삼색기를 형상한 복장차림에 갖가지 응원기재들을 능란하게 활용하며 열심히 응원한 평양시 응원단의 모습도 특색있었다.

이미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는 체육경기들마다에서 관록있는 응원단으로 널리 알려진 평양시 응원단을 말아 지휘하는 두 형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남달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어려서부터 응원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던 형 고명철과 군사복무기간 응원대장역을 맡아 놓고 수행했다는 천성적인 기질의 소유자인 동생 고규철의 응원모기는 많은 응원단들의 찬란을 불러일으켰다.

각 도(시) 응원단의 열기면 응원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가 고조에 이를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고영숙



누가 더 많이 잡나?

— 제14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낚시질경기 진행 —

지난 11월 4일, 자연풍치가 하도 아름다와 옛 시인들이 《천하의 절경》이라 일러온 대동강반은 아침부터 흥성거렸다. 옥류관과 마주한 문수지구의 강기슭에서 온 나라인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낚시질경기가 진행되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오전 8시,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이 호기있게 던지는 낚시줄들이 물안개 피어오르는 대동강의 맑은 수면위로 편이 날아갔다. 그들중에는 아무렴 낚시질에서 나를 당할 사람이 있을라구?! 하는 자세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배심든든해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안심할수 없다는 듯 낚시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선수, 조바심에 기계낚시줄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이들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깨성을 쌓고 호기심어린 눈

으로 고기잡이경쟁을 지켜보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백승일 조선자연보호련맹 낚시질애호가협회 부원은 평양시와 각 도낚시질애호가협회에서 선발된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오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자체로 준비한 낚시도구와 미끼를 리용하여 제정된 시간내에 잡은 물고기마리수와 물고기의 총연장길이에 따라 순위를 평가한다고 말해주었다.

이때였다. 《잡았다!》 하는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그리로 쏠리었다. 순간 햇빛에 비늘을 번쩍이며 큼직한 잉어 새마리가 공중에서 푸들쩍 푸들쩍 뛰었다. 세계의 미끼에

잉어 새마리가 동시에 물린것이다. 경기시작 5분만에 제일 먼저 물고기들을 잡아낸 평양시낚시질애호가협회 한승길선수의 얼굴에는 흡족함이 어려있었다.

이에 뒤질세라 이쪽, 저쪽에서 연방 물고기를 낚아내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각 도, 시 낚시질경기들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판록있는 선수들의 솜씨가 확실히 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낚아내는 물고기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도 부쩍 올라갔다.

그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며 백승일부원은 이 기세로 나간다면 오늘 경기에서 지난해 경기성적을 훨씬 능가할것 같다고, 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

들의 수준이 해마다 눈에 띄게 높아지는것이 알린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우리는 경기에 참가한 김춘우(67살) 평양시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과 오통히(69살) 함경남도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도 만나보았다.

일흔을 앞두고있던 회원에 넘쳐 남자들 못지 않게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이들의 모습은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라는 노래구절을 떠올리게 했다.

금방 잡은 붕어며 납주레기를 들어올리며 김춘우선생은 《우리 근로자들이 명절날, 휴식날, 퇴근후에 낚시질도 하면서 살아야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며 낚시도구도 많이 만들어주고 해마다 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를 진행하도록 해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낚시질을 하느라니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낚시질경기로 흥성이는 대동강반을 바라보느라니 이채로운 저 풍경이야말로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꽃피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마음

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행복과 광만에 넘친 모습 그대로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물처럼 그득히 차올랐다.

이날 경기에서는 평시에 련마한 낚시질묘리를 발휘하여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은 량명철 평양시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이 1등을, 오통히 함경남도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이 2등을 하였다. 낚시질경기와 함께 진행된 낚시도구창안품 전시회에서는 특색있는 낚시도구들을 출품한 남포시낚시질애호가협회와 함경북도낚시질애호가협회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홍범식

낚시질재미 남자들만 맛보라

흔히 낚시질이라고 하면 남자들만이 하는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재미나고 건강에도 좋은 낚시질을 남자들만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한두번 낚시질을 해보기 시작하게 점차 재미가 들어 이제는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인가 금강산군경을 갔을 때에도 참대로 만든 낚시도구를 기념으로 사가지고 오는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령감은 내가 성천강에서 낚시질로 잡은 물고기로 만든 회를 제일 좋아한다.

지난 시기 도낚시질애호가협회에서 조직한 낚시질경기에서 1등을 하여 낚시질 잘하는 녀자라고 소문도 났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노라 하

는 낚시질애호가들이 모인 경기에서 2등을 하였는데 녀성이 2등을 하였다고 다들 제일처럼 기뻐하고있다.

순위권에 드는것도 좋지만 그보다 고마운 제도하에서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기쁨이 더 크다.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오통히(69살)



어딜 보나 명승이요, 어딜 가나 전설이라

* 박연폭포 - 령통사 관광도로를 따라 *

개성의 금강 박연폭포에서 시작하여 룡흥동에 있는 령통사에 이르는 구간에 새로 닦은 관광길은 수많은 명소들과 력사유적들, 가지가지 전설들로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있다.

새로운 관광길을 따라 가느라하면 고려의 옛 성 대흥산성과 형제처럼 나란히 솟은 천마산과 성거산의 기암괴석들,

울창한 침활엽의 혼성림속에 이름높은 박연폭포의 절묘한 풍치며 그를 따라 펼쳐진 기담, 마담, 구담, 룡담과 대흥사, 고려의 옛 병영터를 볼수가 있다.

이다. 고모담의 애달픈 이야기 또한 관광길의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을 들은 주지는 사람을 살리고부터 불생각으로 고을의 사또에게 부락하여 어느날 어느 시에 그 처녀를 그때의 그곳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표현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말구유처럼 생긴것이라고 하여 마담이라 불리운다는 마담폭포의 큰 바위우에서, 옛날 사람들이 미끄럼을 탔다는 개울의 미끄럼바위우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한장의 사진에 담아 영원한 추억으로 남길수도 있다.

하늘의 은하수 내려앉았는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81(1992)년 5월 5일 길도 없던 이곳에 뚝소 오시여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명승지로 잘 꾸려야 한다시며 손수 그 뜻까지 풀이해주신 송도3절 황진이 시가 오늘도 천년바위우에 그대로 생생한 박연폭포의 시원함은 아마도 예나제나 변함없는 듯 하였다. 하도 명필이여서 그대로 바위에 새겼다는 유명한 시를 읽으며 사

람들은 력사에 이름을 남긴 황진이 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된다.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는하 락구천 (곧추 떨어지는 물 높이가 삼천척이나 되니 아마도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 아닌가)

이런 유명한 시를 남길만큼 박연폭포는 풍치가 뛰어나 볼수록 장관

들수 있다. 그중에는 량반부자들과 놀러왔던 기생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목욕을 했다는 곳에 깃든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사찰에서 주지의 분부를 받고 산을 내려갈 유혹러로 유명한 이곳에 량반부자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흔적이라고 한다.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이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마산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한다.

새로운 관광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숨을 죽이고 명소마다에 깃든 이야기도

를 들은 주지는 사람을 살리고부터 불생각으로 고을의 사또에게 부락하여 어느날 어느 시에 그 처녀를 그때의 그곳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를 다시 보는 순간 젊은 스님의 병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 후 주지가 두 청춘남녀에게서 결혼인사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 젊은 불자를 속세의 중생으로 만들었다고 양친대소하였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웃음을 자아내는가.

집채같이 큰 바위들이 겹쳐 세 면이 막히고 바위틈새로 덕수가 졸졸 흘러 내리는 기담은 가슴높이에서부터 발목길이에 이르기까지 물의 높이가 각이한 지형이 작은 구역에 자연적으로 조성된것으로 하여 그 기묘함을 이루 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 이곳에 도로를 건설하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개성의 청년들이 건설한 관광도로를 따라 걸느라면 조선봉건왕조시기 태종 리방원이 와서 늘군 했다는 태종대머리 높이가 5~6m나 되는 큰 바위들이 지척에서 바라보인다. 쟁반같이 넓고 평탄한 태종대머리에 서느라면 수백년전의 심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관광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천마산군경을 온 다섯명의 로인이 경치가 하도 황홀하고 그저 지나치기 아쉬워 바위에 이름을 새겼다는 오로대며 산이라고 말해야 할지 바위라고 말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게 큰 돌우에 세워진 천연의 집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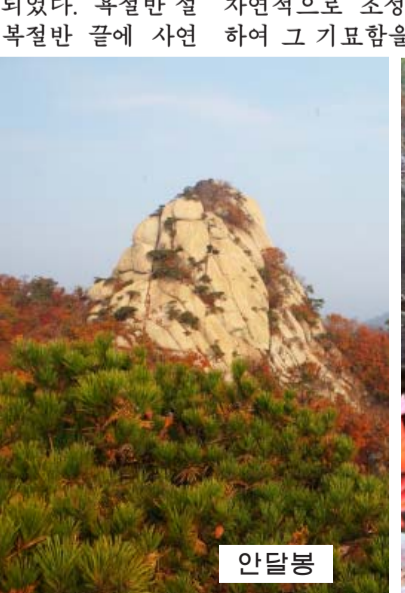
대흥산성의 남문을 지나 북바위를 불리우는 화강석바위를 보면서 우리나라 천태종의 성지인 령통사에까지 이어진 도로를 따라 가느라면 그야말로 흥취가 난다.

고려의 수도방어성 대흥산성에 오르면 누구나 선조들의 뛰어난 성건축술과 애국심을 페부로 느끼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새삼스럽게 절감한다. 하많은 전설과 옛 모습을 한품에 안고 있는 천마산은 오늘도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실로 세월이야가 보라지의 코노래가 절로 나오는 박연폭포-령통사 관광도로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성거산에서 내려다본 관음사



안달봉



기담